

성경에세이 (Juan Kim/니카라과)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14 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즈음은 예전과 다르게 좀더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목마름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의와 진리에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기에 내가 복있는 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27 세에 한국을 떠나 30 대를 지나고 40 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도 한번 바뀌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현재 시간에 아직도 빈들이요 광야 같은데서 사는 느낌을 받는 요사이 더욱 영적 진리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젊다면 젊겠지만 그렇다고 적은 나이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한 조각씩 만든 무엇을 이제는 하나씩 꺾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삶을 포괄적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가지만을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그동안 마치 집 짓기 위한 재료들을 하나씩 모았다면 이제는 집 짓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께서 첫번째로 남기신 유언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정말 무슨 말씀인가 새롭게 되돌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미국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존경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선교사님께서 쓰신 메시지와 제자 훈련하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좋아하셨다는 시편 1 편 말씀, 성경이 낱아지도록 읽으셨다는 말씀, 밤새도록 독서하시고 연구하셨다는 말씀, 성경을 화학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연구하셨다는 말씀 등등을 많이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께 훈련받는 것을 사모했다는 점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례를 들었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물튼 UBF 창립자 기념을 즈음해 특히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다시 이해하고 그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향한 더 나은 방향을 잡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신선하고 도전해보고자 하는 가치를 느끼게 해 줍니다. 사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말씀이나 사역을 보면 정말 달인 혹은 경지에 다다른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감히 저 분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각자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임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포도주는 새부대에’라는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요즈음은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로 마음만 먹으면 여러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조류들을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폐쇄된 나만의 혹은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은 사람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동역하며 섬겼던 선교지를 떠나 새로운 선교지에 혼자 나와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얻은 영적인 축복 또한 참으로 많았습니다. 매년 새롭게 연구해 보았던 4 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말씀을 연구해보고 강의해 본 것은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신.구약을 읽고 있는 점들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물론 깊이와 정도의 문제였지만, 시도하고 읽었을 때 그동안 그리고 성경의 숲을 조금씩 그리는 중에 있는 기쁨도 맛보고 있습니다. 성경공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단히 더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니카라과 한선협을 통해 선교사 가정에 설치된 CGN TV를 통해 타 교회의 수 많은 말씀의 종들이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을 접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마치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고, 친구가 더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그분들의 메시지를 따라 갔을 것인데 이제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부딪치면서 새로운 경험 혹은 나와 그들이 공유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폐쇄되고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자기도 모르게 편견에 빠질 위험이 있지만 여러 색깔들이 온 세상의 삼라만상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색깔의 조화를 이룬 오케스트라와 같고 온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두 하나님을 찬양한 창세기 1장과 같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얼마전 God Mission 혹은 Mission God 인지 어떤 교수가 책소개를 하면서 선교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하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강의를 들었는데, 참으로 재미있으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 말씀의 구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성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모든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었고, ‘아 저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go back to the Bible’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 세상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나,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항상 마지막은 성경으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교회와 세상 그리고 그 속의 나, 이 모든 것들이 열심히 서로 부딪치고 서로 교통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해답 곧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대와 장소와 사람들에 따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느낌으로 말씀을 받는데 아프리카와 미국에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똑같을 수 있을까? 각각 19세기와 21세기에 사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 혹은 그 신학이나 조류나 운동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진화론이 횡행하던 시절, 세계대전이 왕창 일어났던 시절, 그리고 오늘날 이상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빠르게 다른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말씀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일까? 역시 그것도 성경에 답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통합적인 시력으로 교회와 세상과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객관적인 의견과 생각을 짚어보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이 선생이 되시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즐거움 가운데 다른 차원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은 말씀이었으나 말씀으로 계시지 않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였듯이 우리의 말씀 묵상도 이론적인 공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현장에서 양을 치고, 삶의 현장에서 고통하고 고민하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할때 입체적인 성경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